

금호타이어 노조 “국내 공장 축소 반대... 고용 보장 신공장 지어야”

“피해 없는 1공장 임시 가동해 고용불안 잠재워야”

금호타이어 노조가 공장 재건에 나서고 있는 사측을 향해 고용보장이 담보된 상태에서 합평 이전·신공장 건설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정문 앞에서 ‘국내 공장 축소 반대 총력 투쟁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화재 이후 공장 재건에 나선 사측이 국내 생산 기반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해외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내 공장 규모 축소와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안 문제를 낳고 나아가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합은 사측을 향해 합평빛그린산단으로의 완전한 공장 이전, 단계적으로 화재 직전만큼의 생산량과 고용 규모를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제1공장을 중심으로 반제품 생산량을 높여 신속히 광주공장 부지를 매각, 합평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조합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연간 약 9000억원 매출과 1200만 본 제품을 생산해왔다. 단계적 이전을 감안해도 (합평)1단계 공장은 최소 50% 규모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어질 합평 공장은 연간 1400만 본 생산 규모를 최종 완성해야 한다”며 “앞서 노사는 2021년 단체교섭 당시 광주공장 이전에 대해 일 4만 본(연간 1400만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국내 공장 축소를 반대, 사측의 신공장 건설방안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시스

본) 생산규모로 합의했다. 사측은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타지 않은 1공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설비 일부만 구축하면 즉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은 광주공장부지 매각과 합평 신공장 건설 완성 시점까지 광주공장을 임시 가동해 노

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원자재 제련동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0대 노동자 1명이 대피 중 추락해 큰 부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2명도 다쳤다.

불길은 76시간 만에 꺼졌지만 원자재 정련 공정이 모여 있는 2공장 부지(15만㎡) 중 3분의 2 가량이 타거나 그을린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후 현재까지 공장 동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오권철 기자

5·18단체 “정부, 전두환 찬양 리바스쿨 처벌해야”

“정부, 전두환 찬양 리바스쿨 처벌해야”

5·18민주화운동 공범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학살자 전두환을 찬양한 리바스쿨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리바스쿨 청문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바스쿨의 내부문건을 공개했다”며 “(문건에는) 최근까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손효숙씨, 대통령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이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한 이들은 전씨의 명예회복, 5·18단체 현황조사, 5·18 유공자 명단공개 운동 전개 등을 추진하면서 5·18 왜곡과 폄훼 등에 나서왔다”며

“(특히) 5·18 가해의 정점에 서있는 전씨를 찬양하고, 5·18을 왜곡해온 악질적인 교육 내란 시도에 경악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전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의혜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씨의 이름을 딴 일해공원 폐지·관련 기념물 조성 금지 법안은 우선순위에 밀리고 외면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전씨를 찬양해온 리바스쿨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내란의 잔재를 완벽히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역사왜곡 세력을 단죄하고 국민 분열을 막으라”고도 덧붙였다. /송현근 기자

광주시 “여름철 약수터 이용 조심하세요”

하절기 총대장균 등 미생물 번식 왕성... 가급적 음용 자제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을 맞아 산행이나 야외활동 시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지칭한다.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약수터(청풍터·산장광장·중심사 입구 등 3개소), 남구 대각사 약수터, 광산구 용진 약수터, 산정 약수터 등 총 6곳의 약수터를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연 4회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광주시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절기(7월-9월)에는 월 2회 검사하는 등 연 12회 실시하고 있다.

먹는물 공동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음수대 계수판에 기재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단,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곳이라도 하절기에는 총대장균 등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고 비로 인해 수질이 급변할 수 있어 마시는 건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손을 씻거나 가볍게 따를 씻는 용도라면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지역 먹는물 공동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시설당 총 6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등산 국립공원 약수터 3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청풍터는 6회, 산장광장은 2회, 중심사입구는 1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항목은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으로 조사됐다. /이승원 기자

광주농민, 곤포야적 시위... “내란공범 송미령 장관 사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반대 주요인물”

광주 지역 농민들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퇴와 농업4법 신속 처리를 촉구하며 야적 투쟁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회원들은 11일 오전 광주 서구 시청 앞에 500kg 농업용 곤포 사일리지(사료용 풀) 20여 개를 쌓아 올리며 최근 정부의 송 장관 유임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곤포 사일리지에는 ‘내란공범 농민배신 송미령을 구속하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농민회 측은 송 장관 유임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경 광주시농민회장은 “새 정부는 내란공범을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농민들의 농4법 개혁 의지에 대해 찬물을 끼얹었다. 12·3비상계엄 이후 광주·전남을 포함한 온 농민이 힘을 모아 전 대

통령 탄핵과 새로운 세상이 열릴길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내란 투쟁에 나선 농민들과 각 계층의 대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농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배은망덕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송 장관은 남는 쌀에 대한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 등을 농업을 망치는 법이란 뜻으로 ‘농4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11일 오전 광주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퇴·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시스

‘농업 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대한 개정 입법을 통칭한다.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재해 피해 농어가의 빠른 일상 회복 등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있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전남 국회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광주시농민회의 곤포 야적 투쟁은 송 장관 사퇴와, 농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송 장관 유임 사임과 ‘농업 민생 4법’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민규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